

치유농업 육성 본격화

농진청, 콘텐츠 개발·확산 등 종합계획 수립·시행

국민 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치유농업 육성이 본격화된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 및 회복을 돕는 서비스로 최근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사진)은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022~2026)'(이하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의 목표는 크게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확산 ▲농촌 활력화를 위한 치유농업 사업모델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성과확산, 기반구축, 사업화 촉진 4개 부문별 총 13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농진청은 치유농업에 관한 전략적 연구개발 및 과학적 효과검증 강화를 위해서는 4가지 과제를 진행한다. 수요자의 치유 목적(스트레스 저감, 숙면에 적합한 다양한 치유 자원을 발굴해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생애주기별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예방형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정신건강 고위험군,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대상으로 하는 특수목적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정신적, 신체적 치유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의·과학적 측정지표 설정



농진청 박병홍 청장

과 측정 방법을 고도화하고 치유 효과의 원리구명을 보건·의료계와 협력하여 진행한다.

신산업 창출과 관련해서는 증강현실에 기반한 가상치유농장 조성 기술 개발과 이동 약자를 위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또,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거점기관 구축과 기술 보급을 위해 3가지 과제를 진행한다.

치유농업에 관한 중앙기관 역할을 담당할 '치유농업확산센터'를 2025년 까지 경남 김해에 구축하고, 전국 도(道)농업기술원과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 '치유농업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기술보급을 위해 농장·마을·기관에 설치된 치유농업시설에 개발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각 부처의 사회서비스와 치유농장을 연계한 사업 모형(모델)을 확산한다.

농업·심리·상남 역량을 겸비한 치유농업사를 비롯해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 치유농업 확산 전문가 등 부문별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치유농업 일자리 창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진청은 치유농업에 관한 국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 3가지 과제 더 진행한다.

우선, 치유농업에 관한 기초 자료 마

련을 위해 5년 주기로 관련 산업 규모와 치유농업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장을 구축한다.

그 밖에 치유농업과 연계된 외부 자문단을 구성해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치유농업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연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치유농업 인증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 기술이전 창업 등 현장 실용화를 위한 3가지 과제도 진행한다.

품질관리를 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 중심의 인증제 추진과 인증사원 양성으로 인증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치유농장 창업자를 위한 창업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과 유형별 맞춤형 전문지도(컨설팅)를 제공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치유농업 창업을 지원한다.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국제 공동 연구 확대 및 민간 교류 촉진을 위한 박람회 개최로 저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시행은 치유농업의 체계적 연구개발과 확산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다각화된 치유농업 사업 모델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농촌 활력을 도모하고, 다양한 치유농업 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경남 사천 아라미투어쿠아리움 대표로부터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브리핑을 받고있다.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새만금관광 랜드마크로

새만금공사, 사천바다케이블카 연계 관광시설 찾아 노하우 공유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병재, 이하 공사)는 26일 경남 사천시에서 운영 중인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 관광시설 등을 방문,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케이블카와 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 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공사 임직원들은 사천시의 관광인프라

시설인 사천바다케이블카를 방문해 시설의 운영 현황과 민원·비상상황 대처 방안 등을 중심으로 케이블카 사업 경험을 청취했다.

또한, 사천바다케이블카 정류장과 연계 조성된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사천시)과 아라미투어쿠아리움(쑤개 나들길)을 방문해 연계 관광시설 운영 현황 및 역할을 공유했다.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은 각산 정류장 인근에 조성된 관광·체육형 휴양림이고, 아라미투어쿠아리움은 초양 정류장 인근에 조성된 관광·체험형 수족관으로 케이블카 연계 관광시설이다.

강병재 사장은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 관광시설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참고해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aT,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고등급'

사회적 가치 기여도 조사에서 준정부기관 '최고 득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기획재정부 주관 2021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사회적 가치 기여도 조사에서는 준정부기관 최고 득점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와 사회적 가치 기여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과 사회적 책임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 받은 고객과 지역주민,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공사의 2021년도 고객만족도는 전년 대비 2점 상승한 94.7점으로 모든 조사대상 사업에서 목표점수를 달성했고 사회적 가치 기여도는 76.2점으로 2년 연속 준정부기관 최고점수를 획득했다.

공사는 지난해 국민제안함, 국민참여 혁신단 등 다양한 고객소통 채널을 활용해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한 결과, 군 급시에 학교급식입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장병 먹거리 기본권 증진에 기여했으며,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물 업체에 수출 전용선박을 마련해 줌으로써 막대한 수출길을 열기도 했다.

김춘진 사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공사의 국민 소통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주체가 공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융복합 미래 신산업 아이디어 제품 '똑딱'

전북 메이커톤 경진대회 참가자 내달 20일까지 모집

전라북도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라북도경제통산진흥원(이하 경진원)이 함께하는 전북 메이커스페이스 '똑딱365'에서 메이커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한 '2022 전북 메이커톤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2022 전북 메이커톤 경진대회'는 도내 메이커의 아이디어 발굴과 제품 컨셉 구체화 지원을 위한 전북 메이커스페이스 전문팀 '똑딱365'에서 운영하는 경진대회다.

대회 주제는 전북 융복합 미래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친환경 제품 제작이며, 전북 융복합 미래 신산업

은 태양광·풍력·수소 등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 그린 모빌리티, 탄소·융복합 소재 산업이다.

모집대상은 제조창업에 관심있는 전라북도 내 대학(원)생 및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인 이상 5인 이하의 팀을 모집한다.

경진대회는 서류평가를 통해 20팀을 선정하고, 선정된 20팀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을 위해 '똑딱365'에서 운영하는 ▲메이커 교육 ▲전문가 멘토링 ▲메이커스페이스 보유 장비 및 공간 ▲시제품 제작 재료비를 제공한다.

최종평가를 진행해 우수 커뮤니티 7팀에게는 창업을 위한 시제품 지원, 기술이전, 특허출원 등 사업화 지원과 우수상장도 수여할 예정이다.

경진원 관계자는 "전북 메이커톤 경진대회를 통해 메이커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더 나아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참가자 모집은 지난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메이커스페이스 '똑딱365' 홈페이지(www.maker365.kr) 또는 전화문의(063-219-3596)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성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26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2회 사회적경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여성정책 대처 방안'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주관 사회적경제협의체 회의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전정희)는 26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2회 사회적경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10개 사회적경제 및 창업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 운영은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여성 창업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개발하고, 공동협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함으로, (사)벤처기업협회전북지회, 전라북도경제통산진흥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도내 사회적경제 및 창업지원 유관기관이 함께 했다.

또한 협의체를 통해 유관기관 간 사회적경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여성실업률 확대와 동시에 지역 적합형 사회적 경제 분야의 여성경제 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사)벤처기업협회전북지회 유기달 총괄이사는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면서 지역 구성원의 참여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회적 기여를 증시하고 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는 특성을 가진다"며 "관계중심적인 여성친화력의 강점을 살릴 수 있어 여성에게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정희 센터장은 "사회적경제는 여성고용률 제고,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인재 활용이라는 주요현안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성들의 경우 창업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창업 유관기관의 지원과 협조를 받도록 지원받은 물론 협의체 참여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 공유와 공동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여성 창업자 육성·지원을 위해 창업 보육실(2개소)과 상설 프리마켓(8개소)을 운영 중이며, 코로나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소풍물라이브커머스 창업교육'을 운영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jbwc.re.kr)나 취업지원팀(063-254-3714)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성 기자 · 정은성 기자

구하는 특성을 가진다"며 "관계중심적인 여성친화력의 강점을 살릴 수 있어 여성에게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정희 센터장은 "사회적경제는 여성고용률 제고,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인재 활용이라는 주요현안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성들의 경우 창업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창업 유관기관의 지원과 협조를 받도록 지원받은 물론 협의체 참여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 공유와 공동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여성 창업자 육성·지원을 위해 창업 보육실(2개소)과 상설 프리마켓(8개소)을 운영 중이며, 코로나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소풍물라이브커머스 창업교육'을 운영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jbwc.re.kr)나 취업지원팀(063-254-3714)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성 기자 · 정은성 기자

LX, 올 상반기 연구직 전문경력직 채용

총 13개 분야 17명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신사업 추진 및 공적역할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경력직 공개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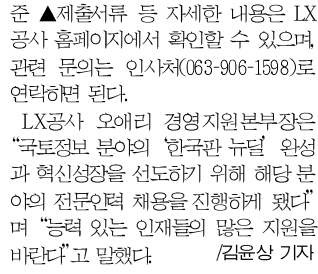
모집 분야는 ▲연구직 ▲전문경력직 등 총 13개 분야로 17명을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성검사, 면접심사로 진행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29일부터 5월 9일까지로 LX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분야별 중복 접수는 불가능하다.

이 외에 ▲지원자격 기준 ▲평가기준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LX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인사처(063-906-1598)로 연락하면 된다.

LX공사 오애리 경영지원본부장은 "국토정보 분야의 한국판 뉴딜 완성 과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며 "능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남원농협 고숙동합센터서

드론 공동방제단 발대식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 22일, 남원농협 고숙동합센터에서 남원 거주 농업인 중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고 드론을 보유한 20명의 조합자로남원농협 공동방제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은 농업인의 드론 자격증 및 드론 기체 취득 비용이 높아지면서 고가의 기체에 대한 효율성 증대가 필요하고 적기 즉시 방제를 위해 남원농협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농업인들로부터 구성된 공동방제단은 남원농협이 전국 최초로 방제작업은 방제기술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방제를 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에 따라 직접 농업을 하면서 작물 시기별 즉시 작업이 가능한 지역 농업인으로 구성했다.

남원농협 박기열 조합장은 "지난해 우리지역도 벼 목도열병으로 수확량이 급감해 농가 피해가 심각해 적기이앙, 드문모심기 및 공동방제 활성화로 대응하고, 청년농업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도모 및 관내 방제 대행 서비스를 더욱 조직화하는 기반을 위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